

팀원들의 몸에 자신들의 엉덩이를 비비며 흙을 떨어내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그림 25~27). 이 행동은 크메르어로 ket이라고 부른다. 내기에 따른 이와 같은 ‘벌’은 상징적으로 기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6.3 참조). 보통 이성끼리 몸을 비비는 것은 관습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설 명절과 즐롱 췌 축제 기간, 특히 줄다리기 경기 도중에는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 마을 사람들은 “줄다리기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경기에 참가한다면 화내지 마라!”고 말한다.

5. 줄다리기의 역사적 배경

섹션 3과 4는 현재 캄보디아의 줄다리기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줄다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다리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문화 속에서 줄다리기의 근원과 그 영감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유일하게 전해 내려오는 줄다리기 연관 설화와 그 내용이 집약된 성상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1. 줄다리기 관련 설화

모아 메이 씨는 덕망 높은 고(故) 퉁 스님으로부터 줄다리기 관련 설화를 전해 들었다. 메이 씨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1953년 캄보디아의 문화 학술지 「Kampuch Surya」에 실렸다. 이 이야기는 줄다리기와 관련된 유일한 기록물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다.⁵

5.1.1. (설화 내용 번역)

어느 날 신을 질투하는 한 무리의 악마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신은 악마보다 힘이 약하면서도 에이소르(시바) 신의 가호를 받아 더 높은 위치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악마들은 또한 신들과 힘을 겨루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악마들의 불평을 전해들은 신들은 “악마여, 우리는 몸집이 더 큰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힘겨루기를 하고 싶다면 응해 주겠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응수했다.

악마와 신들은 밧줄을 당겨 힘을 겨루기로 했다. 악마들은 자신들이 이길

⁵ 불교연구소, 「Kampuch Surya」, (프놈펜, 불교연구소, 1953), pp. 547-549

경우 신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겠다고 내기를 걸었다. 예를 들어 에이소르 신전에 모여 자리에 앉을 때 신들보다 악마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다. 줄다리기 시합은 다음 날 하기로 결정했다.

신들은 에이소르 신전 앞 뜰에 모여 시합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궁리했다. 그 때, 원숭이의 왕 발린이 이 시합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들에게 한 가지 묘책을 제시했다. 우선 나가(머리가 여러 개 달린 신화 속의 용)를 밧줄로 사용한다. 나가의 머리 쪽은 신들이, 꼬리 쪽은 악마들이 잡고 당긴다. 그러는 동안 신들은 동료에게 미리 귀땀을 하여 나가의 배꼽을 간질이도록 한다. 이렇게 간질이면 나가는 꼬리를 움직일 것이고 악마들은 시합에서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린은 장담했다.

이튿날 줄다리기 시합을 위해 신과 악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악마들은 나가의 꼬리 쪽을 잡고 신들이 머리 쪽을 잡는 데 동의했다. 힘을 겨루는 동안, 한 신이 계획대로 나가의 배꼽을 간질이는 바람에 악마들은 꼬리를 놓쳤고 시합에서 패배했다.

5.1.2. 설화의 기원

이 설화는 유해교반(乳海攪拌)이라는 힌두교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신화는 신과 악마들이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우유의 바다(乳海)를 젖는다는 내용으로, 앙코르 왕조 시대(9~13세기)에 널리 전파되었다. 신과 악마들의 줄다리기 시합에 개입한 발린이라는 존재는 앙코르와트 사원(12세기)과 바이윤 및 반테이 츠마르 사원(12세기 말~13세기 초)에서 볼 수 있는 양각 부조와 위의 설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작지만 중요한 증거이다. 유해교반을 표현한 양각 부조에는 원숭이의 왕이 나가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그림 28~30).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유해교반 신화나 원숭이 왕에 대한 정보를 다룬 기록물이 인도에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캄보디아 설화는 발린이 원숭이 왕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문화에서는 유해교반 신화에 발린을 포함시켜 이 영웅적인 왕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Ramayana)에서 발린은 억울하게 죽는다. 유해교반이라는 고대 신화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이 설화가 적어도 앙코르 왕조 시대부터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줄다리기의 기원을 보다 깊이 파고 들어 비교 연구를 진행해 보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캄보디아의 공동체들과 달리 인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이푸가오 주 하파오 바랑가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도 줄다리기 시합을 연행하고

있다. 이것은 줄다리가 공통의 근원, 즉 농경문화 공동체에서 유래했으며 아주 오래 전부터 동남아시아 전역에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고대 캄보디아에서 유해교반 신화가 널리 전파된 것도 캄보디아인들이 농업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줄다리기는 신화가 전해지기 전부터 존재했고 이후 신화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

5.2. 성상물

이야기를 전한 마오 메이 씨에 따르면 줄다리는 원래 림커 서사시(인도 라마야나 신화의 캄보디아 버전)에 등장하는 신과 악마들 간의 힘겨루기를 의미했다. 또한 그는 ‘나가의 머리를 잡은 신들과 꼬리를 잡은 악마들’이 벌이는 줄다리기를 묘사한 앙코르와트 사원의 양각 부조를 직접 보았다고 전했다. 유해교반의 힌두교 신화를 모르는 캄보디아인들도 이 양각 부조가 줄다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로 잡아야 할 작은 오류가 있다. 앙코르와트 사원 동편 회랑에 양각 부조의 남동쪽 모서리 부분을 보면 이 신화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바로 유해교반이 묘사되어 있는데, 악마들이 나가의 머리를 잡고 있고 반면에 신들이 꼬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림 31).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설화는 유해교반이라는 힌두교 신화와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 명문과 성상의 증거에 따르면 이 유해교반 신화는 고대 캄보디아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며 신화의 기원지인 인도에서보다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된 경우가 더 많았다. 유해교반 신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예술 표현물은 적어도 9세기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32).

유해교반을 묘사한 양각 부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유의 바다를 젖는 모습과 밧줄이 된 용(naga)을 당기는 모습이 그것이다. 뱅밀리(그림 33)의 상인방과 앙코르와트 사원의 양각 부조(그림 31)에 새겨진 악마와 신들의 다리 움직임은 분명 유해교반의 신화를 묘사하고 있다. 반면, 11세기 무렵에 지어진 프라삿 스넵 및 에크 프놈 사원의 상인방에 새겨진 악마와 신의 다리 움직임과 자세는 줄다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다(그림 34와 35).

현재 알려진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캄보디아 문화에서 줄다리의 기원과 그 영감의 원천은 물리적, 종교적 표현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해교반의 힌두교 신화에서 유래하거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⁶ 일부 정보는 2013년 4월 12일 대한민국 당진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를 국제 심포지엄: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의 다양성과 통유성’에 참가한 뒤 추가했다.